

“원전 폐기물 총량규제해야”

환경단체 “암·유전적 악영향 유발 ... 농도규제론 한계”

영광 한빛원전을 포함한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에서 지난 12년간 배출한 방사성 폐기물이 6739조 베크렐(Bq)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사업자 측은 배출된 방사성 폐기물의 양이 법적 허용치 이내라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기준치 자체가 낮아 실제 설정됐다며 미량의 폐기물이라도 암·유전적 악영향을 유발하는 만큼 배출 허용 기준치를 기존 농도 규제가 아닌 '절대 총량'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와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국내 원전 방사성 폐기물·삼중수소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국내 4개 원전 단계에서 지난 12년간 바다와 주변 공기 중으로 흘러나간 양이 6739조 베크렐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원전에서 배출한 기체 폐기물의 방사성 폐기물량은 약 3906조 베크렐, 액체 기체 방사성 폐기물량은 약 2382조 베크렐이었다. 이 같은 양은 지난 2011년 지진 해일에서 비롯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하루에 바다로 흘러나갔던 방사능 오염수 705조 베크렐의 10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연구소 측은 밝혔다.

이 가운데 월성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성

한빛 등 4개원전 12년 배출량 후쿠시마 사태때의 10배 육박 법적 배출 허용치 강화 시급

폐기물량은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은 4442조 베크렐로, 전체의 66%가량을 차지했다. 중수로형인 월성원전은 경수로 원전보다 10배 이상 삼중수소를 더 배출하기 때문에 총량이 많았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경수로형 중에선 영광 한빛원전에서 배출한 방사성 폐기물량이 916조 베크렐(13.6%)로 가장 많았다. 기체 폐기물이 213조6000억 베크렐, 액체 폐기물이 702조9000억 베크렐이었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은 691조 베크렐, 부산에 위치한 고리원전은 687조 베크렐에 이르는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했다.

국내 원전이 배출한 방사성 폐기물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어서 바다나 공기 중에서 최대 120년간 남게 돼 기준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식으로든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울 1월부터 10월까지 원전 인근 바다로 배출된 삼중 수소량은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원전이 7만5555㎍로 가장 많았고, 한빛원전 3만1636㎍, 한울원전 2만

6800㎍, 고리원전 1만540㎍ 순이었다.

필터로 잘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몸속에 흡수될 경우 DNA 분자를 파괴해 암이나 유전적 영향,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한 결과 5세에서 80세에 이르는 주민 모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구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삼중수소 기준치는 t당 4000만 베크렐로 돼 있지만, 미량의 삼중수소라도 호흡 또는 피부흡입을 통해 체내에 흡수, 축적될 경우 암이나 유전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도덕 환경과자치연구소 기획실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현재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현행 농도 규제를 절대적인 총량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배출된 방사성 폐기물량은 베크렐 단위로 보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극소량에 불과해 인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서 “법정 기준치를 웃돌지 않았지만, 국민 우려가 있는 만큼 배출량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희기자 khk@kwangju.co.kr

초강력 AI, 확산 빠르고 인체감염 우려... 방역 촉각

전남도 인체감염 대책반 운영 철새 도래지 탐방금지도 검토

H5N6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남에서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남도 등 방역당국과 축산농가가 당황하고 있다. 과거 AI와는 감염 속도가 이후 전개 등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H5N6형 AI는 국내 인체 감염사례는 없지만 지난 2014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15명이 감염되고 그 중 9명이 숨지기도 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남 등 5개 도에서 발생한 13건의 AI는 모두 H5N6형이다. 지난해와 지난 2014년의 H5N8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H5N8이 오리 전화적으로, 증상은 늦게 진행되는 것에 비해 올해 발생한 H5N6는 철새, 닭, 오리에 고루 전파적이고 감염된 가금류의 증상도 급성으로 발현하고 있다. 게다가 인체 감염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전남도는 인체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체감염대책반을 구성, 대응 요원 예방접종 및 살처분 참여자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선제적 예방 강화에 나섰다. 중국의 인체 감염 사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 등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인체 감염이 발생하면 인체감염대책반을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모두 구성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올해 대응요원 3400여 명에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다.

인체 감염 사례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전남도는 격리중환자실 1개소, 격리외래 5개소를 지역 거점병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대응 요원과 환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4297명분과 개인보호

구 1만430세트를 비축해둔 상태다.

H5N6형 AI 전파의 주범인 철새들의 도래지에 대한 탐방 금지 등의 대책도 논의 중이다. 전남도가 최근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인 진도 군내호, 순천만, 해남 고천암·영암호, 함평 대동저수지, 영산강, 고흥만, 강진만 등을 찾아 철새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2마리에서 H5N6형 AI바이러스를 채취했다. 채취 후 이틀만에 해남에서 같은 형의 AI가 발생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AI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감염된 조류에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를 하고, 유사증상 발생 시 보건소나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금류(닭, 오리)는 섭씨 75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하므로 감염 가능성이 없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150개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은 22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교육연수원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악착같이 싸워 이겨 70년 한 풀어야죠”

근로정신대 미쓰비시 상대 3차 손배소 첫 재판

“청구액은 360만원...돈이 문제 아니라 사죄 받아낼 것”

“시할머니는 한 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으셨어요. 일본에 끌려갔다가 숨진 딸 때문에 평생을 가슴앓이 하셨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해 꼭 사죄를 받아내려고 소송에 나섰어요. 악착같이 끝까지 싸워 이길 겁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하다 숨진 고(故) 최정례(사망 당시 15세)씨의 조카며느리인 이경자(여·73)씨는 22일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고모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영옥(여·84)씨와 함께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배상 청구액

은 360만원이다. 이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70년 묵은 한을 풀어드리려 소송을 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이날 김영옥·이경자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지난해 5월 22일 소송이 제기된 지 1년6개월여만이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강제동원돼 노역한 김씨는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했다. 김씨는 여수 미평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께 미쓰비시로 동원됐다. 같은 시기 나주에서 동원돼 그 해 12월 일본 지진에 목숨을 잃은 고(故) 최정례씨의 유가족인 이씨는 360만원의 금액을 미쓰비시에 청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미쓰비시의 불법행위, 즉 강제동원에 따른 위자료 등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범의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를 주장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을 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24일이다.

한편,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2012년 10월부터 3차례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극덕·이동현·박해옥씨와 유족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 승소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재림·심선에 할머니 등 4명이 제기한 2차 소송은 미쓰비시 측이 사소한 이유로 3차례나 소장을 반려, 33개월이 경과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지역교육계 강력 촉구 잇따라

시도교육감협 대응 방향 모색

교육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역사교사 모임, 빛고을역사교사모임 등은 2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교육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역사교과서 다양화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해온 성과이며 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

하는 것”이라며 “한국사 국정화 추진을 비롯, 교과서의 배부를 막기 위해 교사용 홍보자료 제작 배부, 교과서 불사용 선언, 집회 등 한국사교과서 배부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전국 시도 교육감들도 24일부터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한 달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페소공포증 환자 승강기 간헐다 구조



○-전기공사가 진행 중이던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3대가 동시에 멈춰서면서 페소공포증 환자 등 주민 3명이 갇혔다가 119구조대에 무사히 구조.

○-22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에서 3개 라인 승강기 3대가 동시에 멈춰, 주민 조모(26)씨 등 3명이 갇혔다가 10분 만에 구조됐다.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강기 안에 갇힌 주민 상태를 확인하던 중 조씨가 페소공포증과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5층까지 뛰어올라가 조씨를 구조했는데, 구조대원은 “전기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p>경매 수익형 빌딩</p> <p>감정가 41억6천만, 최저가 41억6천만 서구 광천동 / 일반상업지역 / 대지 223평, 건물 571평</p>	<p>경매 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경매 수익형 상가 빌딩</p> <p>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p>	<p>경매 교육 연구 시설</p> <p>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p>
<p>매매 오피스텔</p> <p>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p>	<p>매매 상가건물</p> <p>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매매 가스충전소</p> <p>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세차기 / 3기 6구</p>	<p>매매 전원주택</p> <p>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p>
<p>매매 연립주택</p> <p>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매매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부지</p> <p>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점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p>	
<p>매매 숙박시설 부지</p> <p>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매매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p> <p>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점 / 월출산 조망</p>	
<p>매매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p> <p>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